

야생의 땅, 아르헨티나 후후이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의 숨결이 닿은 땅. 광활하고 경이로운 풍광이 펼쳐지는 아르헨티나 북부 후후이 지방은 신의 땅으로 통한다. 험준한 계곡과 이어지는 무지개빛 산에서, 햇살 가득 내리쬐는 드넓은 소금 평원에서,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야생동물에게서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글 파란 샨다사니 사진 클라우스 발사노

HIGHER GROUND

Pachamama presides over Jujuy Province. Here, in northern Argentina, the Andean Mother Earth can be felt in every divine inch of the vast and varied landscape. Rainbow-hued mountains abut rocky ravines; the sun beats down on immense salt flats and wild creatures defy the odds to thrive in harsh environments. By Pavan Shamdasani Photographs by Klaus Balzano



무지갯빛 산

오르노칼 산맥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말이 이해될지 모른다. 산은 그 자체로 역사라 할 만인데 대지의 색조에 따라 각기 다른 시기를 나타낸다. 6억 년 전 바닷속에 잠겨 있던 시기에 형성된 지층은 초록색, 1억 년 전 공룡이 살던 시기는 보라색, 200만 년 전 인류가 등장한 시기의 지층은 붉은색을 띤다. 볼리비아 고원을 관통해 페루까지 이어지는 오르노칼 산맥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로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이다.

EARTHEN RAINBOW

It's said that with age comes character, and the Serranías del Hornocal are physical proof. This mountain range is a history book in the open air, the rocks' colors each signifying an essential time period — green for 600 million years ago, when all was underwater; purple for 100 million, when dinosaurs roamed the Earth, and red for two million, at the dawn of man. Cutting through Bolivia's high plains and into Peru, the mountains are most breathtaking at dawn.





안데스의 동물

후후이 지방에는 아마를 비롯해 과나코 비쿠냐 등 낙타과 포유류가 서식한다. 아마는 운송 수단으로 활용하고 고기와 가죽, 털을 얻기 위해 길들인 종이고, 과나코와 비쿠냐는 야생성을 보존한 채 고지대의 건조한 곳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안데스의 이 동물들은 해발 4000미터 전후에 주로 살며, 철역 내 적혈구가 많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ANDEAN ANIMALS

The Jujuy region is home to various camelids, such as llamas, guanacos and vicuñas. Llamas have been domesticated to be used as pack animals and for their hides and fur. While guanacos are llamas wild parentage, vicuñas are known as the ancestors of domesticated alpacas. They're found at altitudes of around 4,000m, but their abundance of red blood cells allows them to breathe easily in these low-oxygen environments.

소금 사막

후후이의 살리나스그란데스에 도착하면 꿈 같은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소금 사막은 거울을 연상시킨다. 사막 여기저기 생긴 균열은 마치 거울에 금이 간 듯한 모습이다. 거대한 호수가 말라 형성된 소금 사막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광물을 캐는 인부나 외딴 오지를 부러 찾는 여행객이 드나들긴 하지만, 새하얀 사막의 황량한 풍경은 영원할 것이다.

SALT OF THE EARTH

At first sight, Jujuy's Salinas Grandes seems illusory — a mirror-like salt flat shimmering in the midday sun, streaked with sharp, brackish cracks. The landscape was formed when an immense lake dried up, and now the flat's vast expanse humbles all who make the journey. Workers mine the site daily, and tourists regularly drive up to witness its alien terrain, but the white desert's infinite barrenness forever haunts.

